

Clariant, 파라벤 무첨가 보존료 공급

Clariant가 파라벤 프리 보존료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.

스웨덴이 2010년 4/4분기에 아동용 제품에 Propyl 및 부틸 파라벤 무첨가를 선언했고,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(SCCS)가 모든 화장품 원료에 0.19% 이하의 파라벤 사용으로 제한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Clariant가 다양한 용도의 파라벤 프리 대체제를 잇달아 출시했다.

Clariant가 Milan에서 열린 화장품 무역박람회에서 선보인 <Velsan SC Preservative Booster>은 천연원료로 이루어진 유화제가 포함됐다.

Clariant는 “Velsan SC가 일반적인 보존료보다 기능적으로 월등하며 악취 문제를 원천차단한다”고 밝혔다.

여기에 ProctonOlamine과 Phenoxyethanol 베이스의 파라벤 프리 보존료 브랜드인 <Nipaguard PO5> 와 <Nipaguard POB>도 출시했다.

신제품들은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해 파라벤 함유 제품보다 보존기간을 높여 크림 로션, 선크림, 데오그란트, 린스, 샴푸, 샤워젤과 액체 비누에서 특히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. <이아란 기자>

<화학저널 2011/04/26>